

# 하루 만에 1.5만좌... 카뱅 '모임통장' 심상찮은 돌풍

## B kakao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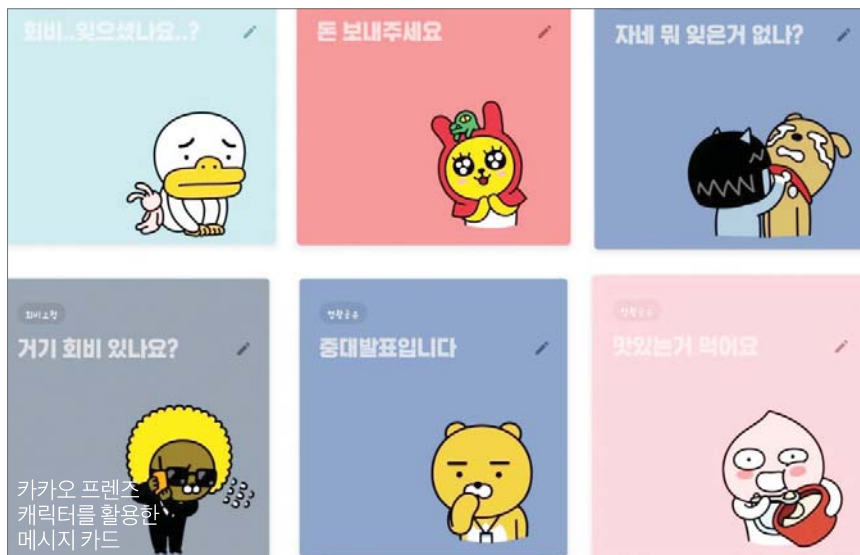
출시 일주일 만에 5.3만좌 돌파  
타은행계좌도 가능해 가입 용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출시 일주일 여만에 계좌수가 5만3000좌를 돌파했다. 올해 초 선보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비롯해 '26주 자유적금',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내 신용정보'에 이어 모임통장까지 흥행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1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모임통장 계좌수는 전일 자정을 기준으로 5만3000좌를 넘어섰다. 지난 3일 출시한 이후 일주일 여 만이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본인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은 출시 후 만 하루 동안에 1만5000좌가 개설될 정도로 초반부터 반응이 좋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 특성상 개인이 가입한 통장을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좌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은 불편함을 개선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모임통장은 새로운 상품이 아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이전부터 모임통장 기능을 제공해왔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임통장을 만드려면 해당

행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데 다 모임 회원들도 모두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반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소셜의 기능은 더하고, 모임원이 모두 같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뺐다.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모임 구성원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된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재미도 더해졌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모임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새로 내놓는 상품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잔액은 7350억원에 달하며, '재미'라는 요소를 내세운 26주 적금은 59만좌로 60만좌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신용정보 조회는 지난 10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달 반 만에 11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729만 명이다. 수신과 여신은 각각 9조7700억원, 8조8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NH농협금융지주

### 신임 부사장에 최창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창수 현 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사진)을 부사장(사내이사)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신임 부사장은 1961년생으로 시군지부장과 지점장, 인재개발원 부원장, 비서실장을 거쳐 올해부터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맡아왔다.

최 신임 부사장은 농협 내 대표적인 기획·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업무스타일과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내외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안상미 기자



지난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솔(SOL) 가입자 800만명 돌파 기념식'에서 위성호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모바일 플랫폼 '솔' 가입자 800만명 돌파

### 신한은행 내년 1000만 달성 전망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솔(SOL)' 가입자가 지난 11일 기준 800만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솔(SOL) 가입자는 지난 2월 정식 오픈 이후 지난 10월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돌파했고, 다시 두 달만에 8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내년 상반기 중 1000만 고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이를 기념해 지난 11일 본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위 행장은 "솔(SOL)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을 이용해 초 맞춤(Super Customization)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송금 모바일로 하세요”

### KEB하나은행-웨스턴 유니온 모바일해외송금 서비스 MOU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The Western Union Company)과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웨스턴 유니온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급 결제 서비스 공급 협약(Payout and Settlement Service Provider Agreement)'을 통해 향후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그 외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 및 전 세계 송금 지불 시장 관련 정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히멧 얼섹(Hikmet Ersek)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유와 글로벌 사업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는 웨스턴 유니온의 200여개국 55만 가맹점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무계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웨스턴 유니온이 한국에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히멧 얼섹(Hikmet Ersek) 회장(President & CEO)이 직접 방문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본국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환 전문 은행의 위상에 걸 맞는 외국인 손님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

## KB국민銀, 코이카 등과 미세먼지 머리 맞댄다

KB국민은행은 12일 코이카(KOICA), 푸른아시아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국장, 밋차이칸(P. Batsaikhan) 주한몽골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몽골 미세먼지 발원지를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 몽골 불간 아이막(道) 바양노르섬(郡)에 방풍림 및 유실수로 구성된 'KB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했고, 추가조



(왼쪽부터)허인 KB국민은행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이 12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림을 추진 중이다. 코이카는 숲에서 수확한 유실수를 활용해 몽골 기후변화 피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푸른 아시아는 해당사업의 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관계자 300여 명 참석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제3회 '위비핀테크랩 시네마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위비핀테크랩'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매년 데모데이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금융권 관계자, 벤처투자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위비핀테크랩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각사의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발표하고 투자유치와 기술판매계약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기업별 발표내용은 ▲틴온(자동이체관리) ▲엘핀(위치기반 인증) ▲엠로보(인공지능기반 맞춤형투자콘텐츠) ▲트라이월드홀딩스(차량수리보증) ▲페이플(간편계좌결제) ▲소프트런치(결제데이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개최한 제3회 '위비핀테크랩 시네마 데모데이(Demo-Day)'에서 우리은행 관계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최진열 턴온아아엔씨 대표, 안상선 엠로보 대표, 박영경 엘핀 대표, 이종진 온인슈어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부장, 김종욱 영화감독, 김현철 페이플 대표, 이성호 인터웨어 대표, 배진홍 소프트런치 대표, 윤형은 캐시멜로 대표,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 상무.

터 분석솔루션) ▲온인슈어(해외배송 보험대행 플랫폼) ▲인터웨어(GPU활용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캐시멜로(해외 모바일 환전서비스) 등이다.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됐다. 스타트업을 소재로 제작된 김종욱 감독의 창작영화 '대한민국 김대표 디데이(D-Day)'가 상영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가수정 화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인공

지능 기술로 참가자들의 초상화를 즉석에서 그려주는 이벤트도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은행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금융 기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핀테크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